국가예산확보 출장결과 보고회

남원시, 내년도 예산 중점확보 대상127개 사업·국비요구액 1670억원에 대한 예산 반영·쟁점 사항 논의

남원시는 6일, 이환주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예산확보 출장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 127개 사업, 국비요구액 1,670억원에 대해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출장을 실시하고 사업별 국가예산 반영상황과 쟁점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중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국비 35억원),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39억원), 운봉 매요 농어촌 취약재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1억원) 등은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실었다.

또한 화장품 시험검사인증 임상지원센터 건립(국비 95억원),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97억원), 금지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13억원), 주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00억원),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6억원) 등은 중앙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순조롭게 예산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외 국립 치유농업체험원 조성사업(국비 400억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08억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사업(1,883억원) 등 부처 예산반영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여 재차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진행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수시로 정부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보물 관광지 즐기고, 선물도 받자

11월까지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 진행 … 주요 관광지 22개소 방문 연계

"임실군 관광지 실컷 즐기고, 선물도 챙기세요".

임실군이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본격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종이 형식의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받던 종이 스탬프 투어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성수산 등을 포함한 관내 주요 관광지 22개소를 방문하도록 연계됐다.

임실군은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옥정호에 벚꽃 만개와 함께 수많은 상춘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5월경에는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전망이다.

옥정호를 거쳐 아이들의 천국이자 장미공원까지 조성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힐링의 숲 성수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관광명소 소개와 전자지도, 지역 상권(맛집, 숙박, 카페 등) 정보, 방문자의 여행 후기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는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관광객들이 지나치기 쉽고 잘 알지 못했던 관내의 숨겨진 여러 명소를 포함한 22개소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스탬프 존이 운영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앱 설치 후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광지를 방문하여 인증스탬프를 획득한 후 기념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월별 스탬프를 5개 이상 획득하거나 여행 후기 '좋아요' 개수 상위득점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월 10월경 기념품을 증정한다.

다만, 임실군민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임실군민은 기념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이 떠오르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에게 관광편의와 재미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옥정호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 성수산 자연휴양림까지 앞으로 임실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대용 임실군의원, 임실군수 출마 선언

"12년 의정경험으로 살기 좋은 임실 건설 위해 발전 견인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대용 임실 군의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임실 군의회 6대와 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3선의원으로 의정활동만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더 살기 좋은 임실 건설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초고령화 시대와 열악한 일자리 문제 등 어두운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임실발전연구원을 신설, 사회, 환경, 문화, 경제, 일자리 등을 분석하여 성장 가능한 자원을 창조,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1조원 시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스마트한 초록 도시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12년의 의정활동을 자양분 삼아 임실 발전을 견인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 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 비장애인 도시 조성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6일, 복지정책 일환으로 남원시를 비장애인도시로 조성해 나가겠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남원시를 장애인과 고령자 등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교통시설, 생활환경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동등한 생활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특구지정을 통해 특수학교를 유치, 활성화시켜 남원을 특수교육환경이 잘 조성된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예비후보, 변화·혁신 성장 발표

최경식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혁신공약 1호로 남원을 디지털관광도시로 조성, 천만 관광객 유치로 '글로벌 관광 1번지'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유동인구를 늘려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예술,생태자원을 디지털화 한 글로벌아트도시 조성 ▲교통산성, 만인의총, 남원성 북문을 연계한 충·혼과 역사의 테마 조성 ▲광한루원, 요천에 빛의 향연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아트 테마거리 조성 ▲김병종미술관과 함파우지방정원 등을 활용한 함파우아트밸리를 확대해 문화와 예술의 테마 조성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자원 테마 조성 ▲국립민속국악원과 남원시립국악원의 합동상설 국악공연 확대 등 6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김종관 "악취 발생지역 폐업 고민 농가 폐업 유도"
김정현 "일자리·주거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양해석 "도시가시 미공급 농촌에 저장탱크 등 지원"

제249회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문화 의원(향교·도통)은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방재정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을 낮추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정책을 시행한 지 13년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해 지방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관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 시에서 악취로 인한 축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악취에 따른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악취 발생지역 축산농가 중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의 폐업을 유도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이나,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현 의원(대산·사매·덕과·보절)은 남원시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년예산은 농촌정책 일부밖에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청년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므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 방안도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농식품부에서 역점 시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참가자 5가구가 지리산나들락 농촌체험마을에 입주하며 8월(1기 3개월·2기 2개월)까지 5개월간 귀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

참가자 5가구, 지리산나들락 농촌체험마을에 5개월 동안 거주

남원시가 농식품부에서 역점 시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참가자 5가구가 지리산나들락 농촌체험마을에 입주하며 8월(1기 3개월·2기 2개월)까지 5개월간 귀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26가구가 접수하는 등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수료자, 농촌 정착의지 등을 심사해 5가구를 참가자로 선정했다.

첫 주는 지리산둘레길, 서도역, 광한루 등을 탐방하며 지역탐색 및 남원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적응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지역민·귀농귀촌인 간의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참가자의 수요를 반영해 농촌이해, 영농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대성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머물다 가는 휴식의 개념에서 벗어나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으 르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해야"

남원시의회, 건의안 가결

남원시의회는 지난 5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지만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나 주소가 도시지역(동지역)인 농민들은 소농 직불금에서 배제되어 면적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어 소농직불금에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로 직불금 수령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생겨 도시지역 거주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인구 소멸위험 지역인 도농복합도시에 농촌지역 범위를 확대해 도시지역(동지역) 내 거주민들에게도 소농직불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소지 구분없이 적합한 직불금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직불금 제도가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임신·출산 가정에 '맘스 안전꾸러미' 무료 배포

순창군 해피니스센터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순창 맘스 안전꾸러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내 임신·출산가정이면 순창군 해피니스센터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150가구에 선착순 한 꾸러미씩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순창 맘스 안전꾸러미에는 콘센트 안전커버, 베이비 마스크, 문 닫힘 방지 쿠션, 밴드, 면봉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순창 맘스 안전꾸러미를 마련했다"며 "관내 임신·출산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산후건강관리지원·출산가정건강관리사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관내 초·중·고 학생 흡연 예방 교육 운영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이달 7일부터 10월까지 관내 학교(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흡연예방교육은 관내 19개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996명을 대상으로 금연 전문강사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담배의 실체 등을 학생들의 흥미에 맞춰 학년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참여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흡연 예방교육은 미래세대 중심인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금연을 유도하여 학교 내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건강을 증진하고 흡연 없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서장, 절도범 검거 감계파출소 직원 노고 치하

김난영 순창경찰서장은 끈질긴 탐문과 예리한 CCTV분석을 통해 절도범을 검거한 남계파출소 직원을 직접 찾아가 공을 치하하고 즉상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월 17일자로 남계파출소에 배명받아 근무하는 조예은 신임순경은 절도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하고 인근 CCTV 및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범인이 통장거래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가는 장면을 확보해 절도범을 검거한 유공으로 김난영 서장이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절도범인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수여해 외근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김난영 순창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범죄에 맞서서는 최선을 다하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단한 문안순찰로 범죄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